

“20년 만의 남미” vs “5회 연속 유럽”

카타르월드컵 결승전 아르헨-프랑스 자존심 대결 통산 세 번째 우승 기대 공통점... 2연패 달성 관심

프랑스가 15일(한국시간) 모로코의 돌풍을 잠재우고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결승에 오르면서 결국 이번 대회 우승국은 남미와 유럽의 자존심 건 대결에서 가려지게 됐다.

모로코를 2-0으로 누른 프랑스는 전날 열린 준결승전에서 크로아티아를 3-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선착한 아르헨티나와 19일 0시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세계 축구 최강 자리를 놓고 다툰다.

그동안 월드컵 우승은 유럽과 남미가 양분해왔다.

2018년 러시아 대회까지 21차례

치러진 월드컵에서 유럽 국가가 12회, 남미 국가가 9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월드컵 우승을 경험해 본 나라는 전 세계 211개 FIFA 회원국 중 8개뿐이다.

브라질이 5회로 가장 많고 독일(옛 서독 포함)과 이탈리아가 4회, 아르헨티나·우루과이·프랑스가 2회, 잉글랜드·스페인이 한 차례씩 월드컵에서 정상에 섰다.

1962년 칠레 대회부터는 한동안 남미와 유럽 국가가 번갈아 가면서 월드컵 우승 세리머니를 펼쳤다.

브라질을 시작으로 잉글랜드-

브라질-독일-아르헨티나-이탈리아-아르헨티나-독일-브라질-프랑스-브라질-이탈리아 순서로 2006년 독일 대회까지 남미-유럽 국가 교차 우승이 44년 동안 이어졌다.

그러다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결승에 유럽 국가만 올라 스페인이 독일을 꺾고 우승하면서 이 법칙 아닌 법칙이 깨졌다.

이후에도 유럽 국가가 계속 정상을 차지했다.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는 독일이 결승에서 아르헨티나를 꺾었고, 2018년에는 프랑스가 마지막 한판 대결에서 크로아티아를 누르고 우승 트로피를 품었다.

남미 국가의 결승 진출은 2014년 아르헨티나 이후 이번이 8년 만

이다.

이번 카타르 대회 결승에서 아르헨티나가 이기면 남미 국가로는 2002년 브라질 이후 20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다. 아르헨티나는 1978년 자국 대회와 1986년 멕시코 대회에 이어 36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 월드컵 정상에 선다.

프랑스가 승리하면 유럽 대륙은 5회 연속 세계축구 챔피언을 배출한다.

프랑스로서는 1998년 자국에서 열린 대회와 2018년 대회에 이어 역시 통산 세 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룬다. 아울러 이탈리아(1934, 1938년), 브라질(1958, 1962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월드컵 2연패를 이루는 나라가 된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골프장 시장 규모 일본과 비슷

한국 8조 5533억원으로 일본의 98.5% 육박
골프인구는 564만명으로 560만명 일본 추월

우리나라 골프장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된 가운데 골프인구는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15일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골프장산업 비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골프장 시장 규모(그린피+카티피+식음료비+캐디피 포함)는 2021년 8조 5533억원으로 일본 8조 6857억원의 98.5%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인구는 2021년 한국이 564만명으로 일본의 560만명을 추월했고, 대중골프장의 주종 그린피는 지난해 5월 기준으로 17만 3700원으로 일본의 5만 5800원(5621엔)보다 3.1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3조 9670억원에 불과했던 한국의 골프장 시장 규모(캐디피 포함)는 2021년 8조 5533억원으로 2011년보다 2.16배 성장했다. 반면 일본은 2011년 9220억엔에서 2021년 8340억엔으로 2011년보다 9.5% 감소했다.

한국의 골프인구는 사상 처음 일본을 추월했다. 골프인구는 2021년 564만명으로, 일본의 골프인구 560만명을 뛰어넘었다. 한국의 골프인구는 2009년의 293만명에서 2019년에는 470만명으로 증가했고 코로나

19로 2021년에는 564만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일본의 골프인구는 2009년의 960만명에서 2020년 520만명까지 감소했다가 2021년에는 560만명으로 40만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체 인구중에서 골프치는 골프참가율을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2배 많다. 한국은 13세 이상 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10.2%에 달했다. 그러나 일본은 15세 이상 인구중에서 골프참가율이 2021년 5.7%에 불과했다.

한국의 연간 골프장 이용 횟수는 2021년 8.8회로 2019년보다 0.5회 늘었고 일본도 2021년 17.2회로 전년보다 2.3회 증가했다. 한국과 일본 골퍼들이 코로나19로 비교적 안전한 실외운동인 골프를 많이 쳤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의 골프장 이용 횟수가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은 비싼 그린피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한국의 골프인구가 일본을 추월했지만 한국의 골프장 그린피는 일본보다 3배 이상 비싸다. 한국에서 골프가 진정한 스포츠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린피 인하는 물론이고 캐디선택제가 확산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선닷컴 기자 sycho@ihalla.com



“저 공은 내 거다” 프랑스 선수 킬리안 음바페가 14일(현지시간) 카타르 알코르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준결승 경기에서 공을 쫓고 있다. 이날 프랑스는 상대 모로코를 상대로 2-0으로 승리하며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손흥민, 마스크 벗고 토트넘 훈련 합류

26일 브렌트퍼드와 EPL 17R로 시즌 재개

한국 축구대표팀의 ‘캡틴’ 손흥민(30·토트넘)이 다시 뛰었다.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을 마치고 소속팀으로 돌아간 손흥민이 곧바로 팀 훈련에 합류했다.

토트넘은 15일(한국시간) 구단 사화관계망서비스(SNS)에 손흥민이 훈련복을 입고 달리는 사진과 함께 ‘Sonny is back’(손흥민이 돌아왔다)이라는 글을 올렸다.

손흥민이 팀 동료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와 함께 가볍게 달리는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과 사진에서 손흥민의 얼굴에 안면 보호대는 없다.

손흥민은 카타르 월드컵 개막 전인 지난달 초 소속팀 경기에서 안와 골절상을 당해 수술을 받았다.

월드컵 출전이 불투명했지만 그는 안면 보호대를 한 채로 월드컵에 출전했고, 우리나라가 12년 만에 16강에 오르는 데 큰 힘을 보탤다. 손흥민은 대표팀이 치른 4경기를 모두 풀타임 뛰는 투혼을 보여줬다.



안면 보호대 없이 달리는 손흥민. 연합뉴스

손흥민은 카타르 월드컵 대회 기간 경기는 물론 훈련 때도 안면 보호대를 착용했다.

현지 매체 풋볼리턴도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돌아왔다”면서 “월드컵이 끝나고 짧은 휴식을 위해 고국으로 돌아갔던 손흥민은 브렌트퍼드와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에서 훈련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토트넘은 26일 브렌트퍼드와의 2022-2023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원정 경기로 시즌을 재개한다. 그에 앞서 22일 안방인 런던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니스(프랑스)와 친선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연합뉴스

KBO 야구센터 기장·형성·보은군 최종선정

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는 한국 야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KBO 야구센터’로 부산 기장군, 강원 횡성군, 충북 보은군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KBO 야구센터는 그 동안 야구계 현안 문제인 저변확대, 프로·아마 야구팀 전지훈련장소 및 교육인프라 부족, 학생 야구의 소양과 인성교육 기회 확대 등 야구계의 지속성장과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했던 인프라들을 한곳에 모은 야구 클러스터 추진 사업이다.

주요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유소년 캠프, 퓨처스리그 활성화, 티볼 보급 등의 저변확대 사업 >지도자, 심판 등 전문인 교육 >바이오메카닉스와 디지털기반 트레이닝을 통한 데이터분석 및 솔루션을 제시하는 R&D 관련사업 등이 있다. KBO는 야구센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래 한국야구발전의 중심축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KBO와 선정 지자체 3곳은 내년 초 상호간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별도의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조선닷컴 기자

12월 21일(수) OPEN

"고객님 한분한분 최고로 모십니다!"

1부 성인친구! 2부 광란의 밤!!

밴드 "SPECIAL"

※주임/웨이터 모집중! ☎ 010-4652-1168 남녀(나이제한없음, 초보자 가능) 064)744-0662~3

제주관광 나이트클럽

연동 보물섬등싸롱 건물

롯데시네마 호텔

한라병원

기아자동차

제주관광 나이트

우리사우나

삼무공원